

■ 교수불자련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 학술대회

“전자망이 절이어야 한다” 이동한 교수
“전문가 협의체 구성해야” 조원희 실장
“불교교육 정보인프라 구축” 고진호 교수

기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불교계 사이트 수에서 알 수 있듯 그동안 관심밖에 밀려나있던 한국 불교 정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국교수불자련협회(회장 이준)는 '한국불교 정보화의 과제'를 주제로 6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래도에 올려놓는 작업이 바로 '금강기술(金剛技術)'이다. 즉 전자망의 개발, 정보기술의 연구, 사찰이나 조직관리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을 불교적 사유로서 대생명계의 질서에 조화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발전 지원하는 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금강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교계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커다란 보시의 하나이다. 한국 불교의 정보화는 금강기술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보편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불교계는 종교적 교리가 과학적 사실과 모순되지 않도록 새로운 차원에서 교리 검토 작업을 거쳐 정보화해야 함과 동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긴요한 문제다. 전자망을 구성할 때 전자망은 절이어야 한다. 정보화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불교를

◇포교의 정보화-조원희 실장 (현대불교 부대표/전라정보실): 정보화의 관점에서 본 포교는 정보를 잘 모아 이를 널리 알리고 방대한 자료를 대중의 필요에 맞게 분별해 해설하는 것이다. 정보화의 대표적 특징인 공동체 형성은 부처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불교계에서는 한자를 컴퓨터 상에서 원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관리를 위한 분류방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한자문헌이나 데이터베이스화에는 필요한 정보 분류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불교계 전체의 관심 분야이며 단결된 대응이 필요한 분야이다. 공생 공용 공식의 부처님 가르침 아래 기존 단체의 연합 성격에 본 불교 정보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이 와 함께 포교를 위해 가장 선원들



◇이동한 교수



◇고진호 교수



◇조원희 실장

구며 큰스님의 법문을 듣고 염불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불교 정보화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자 문제는 현재 사용중인 워드나 유니코드 방식을 통일하든지 보다 효율적인 방법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 요구한다. 불교정보화의 토대 마련을 위해 기술적 사항의 협의, 홍보,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a.com)

◇불교교육의 정보화-고진호 교수(동국대): 불교교육의 정보화는 불교교육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으로 불교교육의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불교교육에 있어서도 첨단 미디어의 활용이 정보화에 따른 중요한 과제이다. 불교교육에서 정보매체의 제작과 활용은 교사와 학생 간에 지식을 공유하고 변환하며 창조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교육에 있어서 하이퍼 미디어의 사용은 메시지 전달자로서의 교사와 메시지 피전달자로서의 교사/학생이 이분법적 패러다임을 타파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불교교육에서의 하이퍼 미디어는 교사와 학생이 정보 네트워크 속에서 벌어지는 진리의 게임에 공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상호작용(交互作用)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불교교육에 있어서 하이퍼 미디어의 적용을 위한 과제는 불교교육 정보망 구축을 위한 작업, 매체의 효과성을 고려한 교수설계, 정보공간의 적극적인 활용방법 검토 등이다.

이밖에 허인섭 박사(고려대장경연구소)가 '경전의 정보화'를, 도원스님(한대중 교육부장)이 '불교전체조직의 정보화'를 발표한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우카나 트러스트

영국불자들의 '생활보시와 禪' 소개
채식요리법 · 불교음악 등 서비스

인터넷 사이트 아우카나 트러스트(The Aukana Trust, 이하 아우카나)를 방문하면 영국의 불자들이 추구하는 '생활 보시와 禪'의 실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아우카나는 30여년간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온 앨런 제임스가 80년에 설립했다. 현재 회원 32만명이 넘는 거대한 불교자선단체로 발달한 이 단체는 영국의 워털루 지역에 선(禪)센터 그리고 비구 사찰과 비구니 사찰 2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아우카나의 ▲ 수행법과 영국의 불자들의 ▲ 사회생활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우카나의 수행법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모든 불교적 의식과 문화적 부차물을 배제한 상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 단체의 설립자 앨런 제임스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 서구사회와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수필집 <깨달음에서 앨런은 '부처님 당시처럼 불교진리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가 마침내 깨달음의 길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우카나의 수행법은 기본적으로 계·정·혜 삼학에 근거한 전통 불교 수행의 남방 상좌부불교의 참상을 권장하는 한편 현대사회·문화적 조건들을 수용하는 새로운 소수 계층도 채택, 반영하고 있다. (gobacou@buddhapa.com)

△http://www.aukana.org.uk/

“수많은 민족시련
미륵신앙으로 극복”

미륵사상이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을 집중 조명한 제2회 미륵사상학술대회가 10월26일 미륵사상연구협회(사무총장 김창배) 주최로 열렸다. 기조발표를 맡은 윤이훈 교수(서울대)는 '미륵사상이 한국문화사에 지닌 의미'에서 "한국의 종교사와 관계된 미래대량 사상은 미륵, 개벽, 종말론이다"며 "한국역사에 나타나는 미륵은 고전·수구·자칭·토속·개벽미륵의 다섯가지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미래불인 미륵이 한국의 학문적 연구나 종교적 실천에 있어서는 과거불인 수구미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민족이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종교지도자들은 디륵의 이름으로 후천개벽의 주인공이 한민족이라는 확신을 심어줌으로써 당당한 역사적 시련을 극복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미륵사상의 흐름과 그 전망'을 발표한 이경우 원장(한국새종교연구원)은 "미륵사상의 도술천이 미륵해설의 융화체계는 역면 그대로 받아들여 이기 보다는 그 정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륵사상은 공동의 선(善)으로 써어가고 죽어가는 인간과 사회를 살려 인간정도 사회정도를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홍범초 교수(공주대)가 '한국의 미륵신앙으로 본 유포리아 건설'을, 황선명 교수(명지전문대)가 '민중문화로서의 미륵신앙'을, 신수현 연구위원(미륵사상연구협회)이 '한민족의 정체성과 미륵사상'을 발표했다.

“선불교 정신으로 현대인 주체성 회복”

능인불교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신규탁 교수 '선과 정토신행' 발표

능인불교연구소(소장 지광스님)는 10월28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신규탁 교수(연세대)는 '선과 정토신행'에서 지력신앙과 타력신앙으로 대조되면서도 선정쌍수(禪淨雙修)의 구조에서처럼 한 곳에 결합되어 온 이 두가지 불교 신행의 이념적 실제적 관계를 규명했다. 특히 간화선의 경우 당나라 선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선수행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가들에 의해 마치 당나라 선사들도 그렇게 수행했듯이 알려지게 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당나라의 선사들은 선불교의 깨달음이 고정돼 있지 않고 개인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깨달아지는 것이기에 부처님을 비롯한 남의 체험을 자꾸 들여다 볼 필요없다고 설법했다는 것이다. 선 교사는 현대와 같은 주체성 상실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이러한 당나라 선사들의 말처럼 주체적 노력으로 깨달으려는 선불교 정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과 정토사상에 대해서도 현대적인 시각으로 선과 정토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육조선사도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했다. 육조대사는 정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어록에 나오는 선문답은 결코 문답사담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어학의 문제는 문헌적인 연구와 중국어를 연구하는 학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는 신 교수는 선어록의 논법이 진언연구에 입각한 불성사상과 돈오사상에 입각한 주체사상이라는 가설도 세워 논쟁을 펼쳤다.

'불교 신행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심재용 교수(서울대)는 '불교의 명상수련'을 통한 간화선의 문제 위빠사나에 대한 관심 단학수련 등 불교 밖의 명상수련법 등을 비교분석했다. 정승식 교수(동국대)는 '무아윤회의 논리와 의의'에서 불교에서의 윤회와 근래에 고조돼온 전생 환생에 대한 관심을 검토했다. 김지연 기자

'사명사상의 재발견' 세미나

사명당기념사업회(회장 박근희)는 5일 '사명사상의 재발견'을 주제로 제3차 학술회의를 밀양대학교에서 개최한다. 전기호 교수(경희대)의 기조연설로 시작될 이번 학술대회에는 일본에서 3명, 중국에서 1명의 학자가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조영건 교수(경남대)가 '임란의 경제사적 배경과 사명당의 의술법', 장동표 교수(밀양대)가 '표충서원의 운명과 성격', 강동균 교수(동아대)가 '사명대사의 불교사상' 이외에도 조영록 교수(동국대), 김진경 교수(경희대) 등 모

학술단신

두 14명의 학자가 논문을 발표한다. 사명당기념사업회는 97년 '사명당의 생애와 사상의 조명'을, 98년에는 '임란 당시의 한중일 삼국관계'를 집중 분석한 심포지움을 개최한 바 있다. 종교학회 추계학술발표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대)는 6일 오전 9시30분 성균관대 종합강의실에서 '21세기를 향한 종교와 종교학'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는 '번역학, 종교학, 종교철학: 21세기를 맞으면서 종교학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한다'(황필호)와 '불교학 연구의 문화배경에 대한 성찰'(이민용)이다. 불교분과(위원장 해주스님)에서는 '한국불교의 신앙행태의 변화 연구'(김용철), '서구의 불교수용'(이동휘)을 발표한다. 이밖에 한국종교분과에서 '한국수련전통의 역사와 변천'(윤이훈), '할나차 환상과 영겁의 종속'(김진명), 인도종교분과에서 '우파니샤드와 아함경의 생전도와 해탈'(안승준), '인도에서의 밀교와 중세사회사'(이광수) 등 19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49재 및 각종 불사의 법보시용으로 가장 좋은 책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큰스님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지성찬 문제를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x6판 / 3,500원

불자의 기본예절
일타 큰스님

바른 수행을 위한 불자 예절의 길잡이!

불가(佛家)의 독특한 예절에 담긴 깊은 상징성과 깨달음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불교예절의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말씨, 걸음걸이와 앉음새, 합장법, 절하는 법, 법당에서의 예법, 법문 듣는 법, 세수·목욕·입욕법 등 절집안의 생활예절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4x6판 / 3,500원

영가천도
우룡큰스님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지식, 영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4x6판 / 3,5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김현준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 책은 관음의 가피의 기도성취를 원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4x6판 /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
김현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

좋은 세상을 여는 보시·해탈의 주춧돌인 계율·행복의 묘약인 인욕·향상된 삶을 보장하는 경건·평화로움을 되찾는 선정·지혜의 완성 반야바라밀!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행복의 길을 찾고자 하는 불자들을 위해 이 한 권의 책을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4x6판 / 3,500원